

청년, 따스한 지역사회 만들기

- 사람공동체 리드미 :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공감하다 -

신정현 (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 청년운동가)



직업도, 철학도, 생각도, 꿈도 전부 다른 스물다섯명의 공동체!

저희 리드미는 기자, 디자이너, 사회복지사, 대학생, 공무원, 홍보전문가, 기획자, 활동가 등등 전혀 다른 직업의 청년들이 모여 현재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 휴식, 평화, 언론, 교육, 농사, 재미를 위해, 또는 심심해서 등 모이는 이유도 전부 서로 다릅니다. 개개인의 개성과 철학, 각자의 생계와 생활을

최우선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드미 안의 모든 프로젝트는 참여 및 활동을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목적과 꿈을 목표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꿈을 존중하고 서로 도와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에 각종 프로젝트는 해보고자 하는 인원들끼리 별도의 분체(내부의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안에는 강요, 강제, 조연 등이 없고 옳고 그름을 구

분하지 않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와 소통 구조

회의에 참석한 전원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며 매 프로젝트는 해당 사업의 본질과 본래의 취지를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멤버들이 상시로 퍼실레이터, 리더, 팔로워의 역할을 바꿔 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학습 공유 기능 (SNS를 주로 활용)

세미나, 학술, 탐방, 연구, 독서, 회의, 전시, 여행, 업무 등 다양한 경험과 공부의 결과를 SNS(카톡,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 및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단체 카톡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문, 철학, 사회, 예술, 환경,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치우침이 없는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청년공동체를 표방

완성된 플랫폼과 기획,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만들기 보다는 (특히 지역에서) 처음 해 보는 일들을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고 절차와 결과를 내외부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마을공동체

“그 많은 고양시 청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희는 이 질문에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청년 스스로 고민하고 발견해 가는 마을공동체입니다. 청년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고양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8명의 멤버들이 한 명씩 행사 참여를 추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재미를 알리면서 마을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마을공

동체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우리는 궁금하다.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중 부끄럽거나,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놓았더니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자체로 크게 공감하고 힐링이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주 쓰는 단어와 일들이 이해되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리드미의 주요활동인 사람도 서관의 시작이었습니다.

100만 시민의 100만 권의 사람책을 꿈꾼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리드미는 점차 청소년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100만 시민이 100만 권의 사람책이 되는 날을 꿈꾸며 오직 ‘사람’이 목적인 사람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사람공동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빠르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드미는 청년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었습니다. 개개인이 이루고자 했던 꿈, 그러나 포기해야만 했던 꿈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되고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작은 변화가 모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도서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개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수십 명의 독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았던 상대방과 대화와 공감의 과정을 거치며 공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꿈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도서관 리드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책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발견하게 되었고, 독자는 그 꿈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로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작은 도서관, 중고등학교에 16회째 사람책도서관 행사를 진행하여 마을 거점 기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렛츠컨퍼런스 (재능나눔장터)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

소소한 재능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쓸모가 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각기 재능을 가진 청년들과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재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재능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림 :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주인되는 inner drawing

미디어교육 : 지역주민들이 좀 더 쉽게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게 스킬 전수 (인터뷰, 촬영, 녹음)

드론날리기 : 최근 트렌드인 드론 운용법과 촬영법 등을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강좌

소규모 목공교실 : 하나밖에 없는 나무 볼펜, 펜던트, 목빗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소소한 잡화목공 교육

인문학 나눔 : 책 나눔, 동서양 철학, 고전 수업 진행

건강강좌, 동안강좌 : 공간 지상에 설계된 가정의학 및 의사와 연계하여 주민 건강 교육 강좌 실시

꿈의학교 비밀기지

“마을형, 오빠가 마을동생을 챙기는 꿈,
대안학교를 세워 보자!”

공공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두가 교사이자 학습자가 되어 동등하게 배워 나가는 학교.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동네의 형언니오빠들이 모여 이 꿈을 현실로 옮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인 도전은 두 달이라는 기간에 마을 내 성공적인 대안학교의 모델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근원에는 ‘동네’라는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적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유공간 ‘지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왜 없을까? 이 질문은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한 다양한 청년공간 및 공유공간을 탐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거점이 없이 활동하는 청년 마을 활동가가 마을살이를 꿈꾸며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사무 지원, 전문가 연결, 홍보 및 네트워킹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네트워크 구성, 신규 사업기획, 프로젝트 등을 연계 및 진행하는 전초기지로서 ‘지하’를 통해 이주민 위주의 파편화된 마을공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등 인큐베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런 꿈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청년들의 꿈을 위해 공간을 내어 주신 마을주민의 배려와 공간조성사업 보조금이라는 시민들의 보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개관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꿈과 도전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언론 '라도미(Radio Me)'

대안 언론사를 세우려는 꿈을 가진 청년의 제안이 '라도미'라는 마을언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은 물론 청소년과 중년이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언론학교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새참 (청년농부, 텃밭 가꾸기)

“한 평의 땅에서 4명 가족이 먹을 채소가 나온대!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도시농부의 꿈은 고양도시농부네트워크(농부,작가 연계 공동체)와 협업하여 현재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청년새참의 농장으로 청년, 청소년들이 각자 삶의 주인되는 친환경 농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26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재교육을 위한 청년농부학교를 세워 청년농사꾼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청년생태계를 상상하다”

리드미는 제도 밖에 위치한 계층을 얼마나 제도 내에 포섭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좋은 공동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청년 당사자의 입장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청년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 청년단체, 청년개인들과 함께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라는 모임을 만들어 청년들이 고양시라는 공간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9월에 이르는 3개월동안 310여 명의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자 등 고양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들을 만나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양청년들의 삶의 실태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고양시의 건강한 청년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리드미의 지향점은 ‘사람’ & ‘공동체’

마을공동체는 지향점을 잃은 채 부유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청년공동체 리드미는 지난 2년 이상의 활동을 통해 28명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마을공동체를 경험했다고 자평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첫째로 각자가 가진 꿈과 개성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총동원했다는 점에 있습니다(사람도서관). 둘째로, 청소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개개인이 가진 소소한 재능을 공유하고 배움으로써 다양한 재능이 존중받는 과정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

게 확립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꿈의학교, 렛츠컨퍼런스). 끝으로 청년들에게 실험과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은 가진 게 없던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리드미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 마치 문어발식 확장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거치며 형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사람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인의 관심 분야와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다보니 각자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철학, 종교, 직업, 나이, 정치 성향 등이 각기 다른 28명의 고양시 청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목적을 내세우지 않는 모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애초에 확고한 목적을 갖고 출발했던 것도, 사업을 펼쳐가기 위한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사람공동체의 가치만으로 리드미의 존재의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청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에서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라브리공동체와 함께 실시한 “기독교 세계관학교”의 강의 중 하나이다.



글 | 신정현

사람도서관 리드미(Read Me)관장으로 통일교육 민간단체 ‘통일드림’의 문화사업팀장이며 통일교육 전문강사이자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평화공감 통일학교’ 대표이다.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및 고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